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5. 9. 16

등록금심의위원회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15. 9. 16(수) 13:30-14:1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성환위원, 김창남위원, 박창환위원, 박훈성위원, 이덕중위원, 남진성위원, 천수승위원, 이은아위원, 이정재위원 이상 9명 >

< 불참석자 : 없음 >

<성원보고>

사회자 : 2015학년도 금강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어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9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함으로 지금부터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2016학년도 금강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에 대하여 본회를 거쳐 심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처장을 의장으로 하여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회선언>

조성환 위원장 : 학교는 앞으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학기 중에도 실무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 려고 합니다. 금강대의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큼니다. 등록금 심의를 통하여 국가정책에 부흥하고 다른대학과의 균형 및 사회 추세에 맞추어 어떻게 진 행할지 여러 위원님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강대학교 2015학년도 제3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의>

김창남 위원 : 인근대학과 비교하여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수도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대학의 경우는 물론 전액등록금입니 다. 혹시 등록금을 낮추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요?

민주영 배석자 : 말씀하신데로 우리대학은 일정 성적이상이면 전액 등록금을 받 는 구조로, 수입과 관련된 등록금을 낮추면 그에 대응되는 지출 쪽 학비감면도 낮

아저서 장학금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입학금과 일정이하 성적자의 자비 부담금입니다.

이정재 위원 :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요?

민주영 배석자 :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학금을 포함하여 3억 5천~4억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장 : 그럼 입학금을 건국대 수준으로 낮추고 등록금은 그대로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합니다. 즉 입학금은 4%정도 인하하고 등록금 동결하는 안입니다.

박창환 위원장 : 그래도 등록금을 약 0.5%라도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민주영 배석자 : 개인적인 생각은 전년도에 등록금을 0.5% 낮추었으므로 이번에는 동결로 갔으면 합니다. 본교의 특성상 낮춘다하여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일정이상 점수를 획득하여 공부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면 동결하고 조성환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위원 : 입학금 4%정도를 낮추면 어느 정도 금액이 떨어지는건가요?

조성환 위원장 : 145명으로 봤을 때 5,800,000원입니다. 더불어 학교의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수능 2등급 이상, 학생들의 충원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의지는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총장님께서 구인사에 가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습니다. 학생위원을 포함한 본교 학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김창남 위원 : 학교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수업방식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LMS가 도입되고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많이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학 교육입니다. 일반적이 아닌 상호성이 있는 수업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 발전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조성환 위원장 : 그럼 2016학년도 대학 입학금만 전년대비 4%인하(938,000원)하고 다른 것은 전년대비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체 위원 : (전원) 이의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장 : 그럼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